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16절

(Tag:영성,영적전쟁,영에속한사람,성령,신약성경,고린도전서)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전2:1-16)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에는 영적인 기능과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이라고도 표현한다. 영혼이 없는 자를

우리는 시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결코 진화되는게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태생적으로 틀린 학문이다. 다만 진화론에서 출발한 학문이 요즘에는 유전학과 생명공학으로 발전하였다. 아직도 여전히 학문은 진화를 거듭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더 깊숙이 발견해 가고 있다.

신학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탐구해 나가는 학문이다.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들은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신학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한다. (물론 세상 학문도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학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해도 역시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기독교인인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길 갈망하며, 애쓰고, 경건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사람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영적인

탐구생활을 통해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경이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격이다.

-사람이라면 영혼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탐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탐구도 가능하겠지만, 결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는 없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세속적인 영, 거짓말하는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종교의 영, 사상의 영, 율법의 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분명히 영적인 기능과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종교 다원주의는 그들 모두 속에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영인데 성령의 흉내를 내거나, 또는 혼합되어 있다. 심지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세상의 영에게 미혹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세상의 영에게 속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가끔씩 나타나기도 한다.(모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아멘.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불법을 행하는 사람.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의 행실이 나타난다. 육이란 영이란

말과 대치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즉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영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또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아닌 다른 영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전체주의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종교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 시킨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거절한다.

-그래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베푸는 선함과 희생과, 계몽과, 문명과, 부요함과, 자유함과, 인격에 대한 존중과, 기쁨과, 사랑과, 친밀함과, 친절함을 경험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난다. 왜냐면 정식으로 자신이 영혼으로 대접받으면서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성령과 세속의 영을 이로서 구별한다.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판단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도 아니다. 또 아무도 그를 실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성령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

나, 무시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해를 끼치려고 하면 피해야 한다. 피해가 지속적이라면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베풀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첫 언약과 새 언약 성경: 히브리서 9장 (Tag:)

-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 4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히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나셨느니라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9:1-28)